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예비역 해군 준장

'2022 국방백서'의 의미

국방백서는 국내적으로 국방정책을 알려 국민적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으로는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신뢰 조성을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안보전문가들은 국방백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백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수많은 관련기관이 참가해 신중하게 작성

된다. 지난 2월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안보 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국방 협력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특징은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적의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敵)'임을 명확히 기술한 것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할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및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 표기를 부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김영삼 정부 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으로 처음 명기됐으며 노무현 정부 시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

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로 대체돼 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주적 개념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적 개념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래 북한의 군사전략과 도발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은 명백한 적임이 틀림없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안보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극심한 정체성 혼란은 군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권을 떠나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재의 안보 현실에 걸맞은 국방백서를 보게 돼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군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사설

물류는 기본권... 물류제주권역 관철돼야

물류비 국비 지원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가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영역의 리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예정이다. 4차 물류계획은 물류시설의 수급현황 및 전망 분석, 기존 물류시설의 개선 방안, 국가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물류계획에 제주권역 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물류가 5대 거점(수도권·충북·영남권·호남권·부내권)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권역이 신설될 경우 권역별 사업 추진 시 제주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물류계획 영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권역 시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 농가부채는 전국 1위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국 1위다. 불명예스런 전국 1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물류비에서 기인한다. 분석도 있다. 특히 도외로 반출되는 농산물의 총 조수입 중 26%가 물류비에

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내는 게 물류다. 그래서 물류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타 지역에서 다 누리고 있는 물류기본권을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제주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권역 시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예고없는 지진, 미리 대비해 피해 줄여야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는 엄청났다. 인명 피해만 봐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난 6일 지진이 발생 한 지 열흘 만에 두 나라의 사망자 수가 4만2000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힌 정도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제주지역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26.7%에 그쳤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약 70% 정도다. 제주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7개소와 내진성능평가 78개소를 추진해 내진율 72.1%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100%를 목표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튀르키예를 덮친 강진을 접하면서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일깨워주고 있다. 지진 발생지역에 위치한 튀르키예 한 도시가 그대로 말해준다. 이 도시에선 사망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나오지 않았다. 비결은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제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1년 12월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4.9 규모 지진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앞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뉴스-in

튀르키예 지진 구호물품 수집 범시민 운동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튀르키예 지진 지역에 전달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긴급 구호물품에 대한 범시민 대상 수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구호물품을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지정한 인천 소재 물류창고까지 화물차에 실어 직접 전달할 계획.

이들은 20일부터 28일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2층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 수집 장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

김두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진으로 고통 받는 이재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호물품 보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했다"며 "공직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 백금탁기자

한우 할인 행사에 소비자 관심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도매가격이 떨어 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17~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한우 반값 파격할인 행사에 소비자 관심이 고조.

제주에서도 16개 농협의 21개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해 한우 불고기, 국거리, 등심을 30~50% 할인 판매했는데 일부 매장에선 할인 첫 날 매장 문을 열자마자 고객이 몰려 30여 분만에 물량이 모두 동나기도.

한 소비자는 "한우 도매가격이 내렸으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에 반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반값 할인 소식에 첫날 매장을 찾아 한우를 구입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열린마당

뇌졸중,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대 호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첫째, 안면마비. 웃었을 때 얼굴 좌우 모양이 다르거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편마비. 팔·다리 한쪽이 움직일 수 없거나 힘이 약해진다. 셋째, 언어장애. 말하는 것이 평소보다 어눌해지거나 의미 전달이 어렵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도 하며 이 같은 경우 며칠, 몇 주 이내에 다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상이 완화됐다 해도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겨울철 위험질환인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조 증상을 기억하고 대처하도록 하자.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며 혈액이 유출되는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뇌졸중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정웅(자영업) 어머니 안동권씨 중자(향년 83세)께서 서기 2023년 2월 19일 06시 1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2월 20일(월요일)
▶발인일시: 2023년 2월 21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호국원
아 들 김정웅 며느리 고성미
딸 김진희 사 위 김영건
양희
은희 고석정
선희 류종백
정희 양봉호
* 연락처 : 김정웅 010-9077-6603
김영건 010-3639-4158
고석정 010-9840-5596
양봉호 010-9855-0324

부 고
이정우 아버지 전주이공 상봉(前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향년 71세)께서 서기 2023년 2월 19일 10시경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2월 20일(월요일)
▶발인일시: 2023년 2월 21일(화요일) 오전 9시 2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빈소
▶장 지: 양지공원→해안동 선영
부 인 전용숙
아 들 이정우
딸 이윤경 사 위 김재희
윤하 윤민수
* 연락처 : 이정우 010-9840-5906
이윤경 010-2075-5511
이윤하 010-9963-590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종석(중등계 교장·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20일
부 인 김영옥
아 들 김성훈 며느리 신연정
딸 김지연 사 위 김대경
필연 고영우
수연

차고지/주차장
시의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차보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양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백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점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점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